Global Goings-on

미 국

노인고용률과 노동총량의 딜레마
More older workers making up labor force

▶ 수백만 명의 한창 나이의 근로자들이 일을 그만두고 있는 때에 오히려 노인들이 은퇴를 늦추고 있다고
- 65세 이상의 미국인 5명 중 1명이 일을 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상황
- 반면 2007년 말 경기침체가 시작된 이래, 다른 연령대의 근로율(특히 젊은이들과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에서 50대)은 서서히 감소
- 노인들이 일을 계속하면 사회보장세와 다른 세금을 내게 되므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

▶ 그러나 노인들의 근로율이 증가하면서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난다고
- 즉, 노인들의 취업이 증가한다는 것은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로, 젊은이들과 장년층의 근로자들은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최신 기기를 구매하는 등 노인들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므로 이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면 소득도 줄어들게 되어 구매력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
-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바로 노인들이 일을 그만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젊은이들이 졸업을 늦추고 취업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 노인들의 취업률은 전체 취업률 대비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5년 동안 노인들의 취업률은 27% 상승했고 7월에는 7백만 명을 넘어선 반면 35세에서 54세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동기간 대비 8% 하락
- Linda Madden씨를 포함한 많은 노인들이 은퇴를 한 후에라도 일을 멈추지 않고 파트타임으로라도 계속 일을 하려고 한다고

▶ 노인들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 데에는 변동이 심한 주식 시장과 연동된 퇴직연금과 주택시장의 침체가 큰 몫을 차지
- 또한 경기침체로 직장인 은퇴플랜인 401(k)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퍼짐

– 노인들이 은퇴를 늦추는 데에는 이러한 재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더욱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일을 계속 하려 한다고

▶ 이렇듯 노인들이 계속 일을 하게 되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 Harry Holzer 조지타운 대학교 노동 경제학자는 더욱 강한 경제와 일자리 프로그램이 없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2012년 9월 4일 / Los Angeles Times
〈원문링크: http://articles.latimes.com/2012/sep/04/business/la-fi-labor-seniors-20120903〉

지나친 진료는 환자가 알아서 피해야 Overtreatment is taking a harmful toll

▶ 많은 환자들과 의사들이 진료는 다다익선이라고 믿지만, 너무 많은 피검사와 컴퓨터 단층 촬영 등과 같은 과잉 진료가 적어도 일 년에 2천 1백억 달러의 의료보험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으며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 "과잉 진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뉴욕 타임즈에 실린 질문에 약 1천 여 명 이상이 크고 작은 예를 들어 답장을 보내왔다고

– Case 1: Terrence Power씨는 부인이 베게너 병(Wegener's disease)에 걸렸을 때, 의사의 권고를 거부할 수 없어 3주에 한 번씩 진료를 받았고 피검사와 x-ray검사를 자주 받았으며 가벼운 감기가 걸렸을 때도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고

– 부인의 치료를 위해 일 년에 약 3만 달러를 소비했고, 수 년간의 육체적 고통과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후 온라인 상에서 다른 환자들의 조언을 구한 후 치료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어 결국 다른 주치의에게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동안 받아왔던 불필요한 검사는 중단되고 일 년에 단지 네다섯 번쯤 진료를 받고 있다고

– Case 2: 43세의 Kara Riehman씨는 눈에 멍이 들게 되었는데 멍이 10일 간 계속되자 의사에게 문의하였고 의사는 자신을 진찰조차 하지 않고 CT를 찍게 했다고

– 간호사는 CT결과 암일 수도 있으니 MRI를 찍어야 한다고 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안 속에서 2주를 기다렸지만 결과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으며 검사에 들어간 보험료만 7천 달러였다고

– Case 3: Jim Donohue씨는 현재 79세인 자신의 아버지가 2007년 3월 뇌졸중을 앓았던 당시, 의사들이 우울증을 의심하며 관련 약품을 처방했으나, 자신의 요청 끝에

처방약품을 바꾸게 되었고 이후 곧 회복되어 현재 4년간 혼자 건강히 살고 있다고

- 어떤 의료기관에서도 이러한 오진을 가려내지 못했고 전문의가 과연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 Case 4: Kathryn Gullo씨는 임신한 지 25주만에 출산을 하게 되어 미숙아로 태어난 자신의 딸이 신생아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3개월이 되었을 때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의사들은 이전 병원의 의료진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증상에 대해 갖가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 그러나, 이전 주치의들을 신뢰했던 터라 거절하였고 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겨 현재 5세가 된 딸은 경미한 뇌성마비와 약간의 시력 감퇴 등과 같은 증상이 있어 특수 치료를 계속 받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의사들이 MRI를 찍도록 권유하며 이를 위해 마취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상담 끝에 결국 MRI를 찍지 않기로 했다고

2012년 8월 27일 / The New York Times
〈원문링크: http://well.blogs.nytimes.com/2012/08/27/overtreatment-is-taking-a-harmful-toll/〉

영 국

늘어만 가는 英 홈리스
Homeless families in B&B accommodation up by 44%

▶ 지방 의회가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홈리스 가구의 숫자가 거의 50% 상승했다고

- 영국 National Housing Federation은 2011년 1월에서 3월까지 긴급 임시 거처(B&B)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전국적으로 2,750가구였으나, 2012년 동기간 3,960가구로 상승했다고 밝혀
- National Housing Federation은 홈리스 가구의 수가 상승하고 있어 B&B와 같은 임시 거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 지난 2년간, 홈리스 가구의 수는 1만 가구 상승해 총 50,290가구로 증가

▶ 홈리스 가구 문제는 런던 내부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

- 정부의 주택 수당 상한제도 때문에 수천 가구가 집세와 정부 보조금의 격차를 메우지 못해 지방 의회에 손을 내밀게 되었다고
- 웨스트민스터 주 의회는 지방 주택수당 상한제도 때문에 1,150가구 이상이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 웨스트민스터 주는 런던 내에는 저소득층 가구가 머무를 곳이 부족해, Hemel

Hempstead, Bletchley, Maidstone, 그리고 Grays와 같은 외곽 지역에 홈리스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했다고

- National Housing Federation은 이러한 거처에서 생활하는 가구들이 주택수당을 주당 5백 파운드로 제한하는(2013년 4월 시행 예정) 상한제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 집세와 관리비가 비싸지면서 집세를 감당할 수 없는 가구들이 B&B나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 정부에서는 주택수당 상한제도가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임시 거처 제공 서비스를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에 대해 확실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

- National Housing Federation의 David Orr씨는 긴급 임시 거처에서는 하나의 방을 여러 가족이 함께 사용해야 하고 낮시간 동안에는 방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서 큰 불편함을 겪는다고
- David Orr씨는 임시거처에 대한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차원에서 임시거처 제공 서비스와 이 서비스에 의존을 하고 있는 수많은 홈리스 가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여

▶ 한편, 토리당의 Mark Prisk 주택부 장관은 어떤 가족도 B&B와 같은 거처에 고립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홈리스 가구의 80%가 거주하고 있는 20개의 주 의회에 지원을 해왔다고 밝혀

- Mark Prisk장관은 또한 영국은 사람들이 홈리스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방책을 가지고 있으며, 주의회가 홈리스 가구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유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여

2012년 9월 17일 / The Guardian
〈원문링크: http://www.guardian.co.uk/society/2012/sep/17/homeless-families-bed-and-breakfast〉

보건복지포럼

매월 발행되는 『**보건복지포럼**』은
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국내 유일의 **보건복지정책 전문지**입니다.

2012년 10월호 (통권 제192호)

등 록 번 호 은평 라00015
등 록 일 1996년 10월 1일
발 행 일 2012년 10월 1일

편집인/발행인 최병호

편집위원장 정경희

편 집 위 원 강유구 곽노성 김성희
김태완 김태정 박실비아
이윤경

인 쇄 대명기획(TEL: (02)2263-1292~3)

가 격 **4,000원**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705)서울 은평구 진흥로 235
대 표 전 화 (02)380-8000
FAX (02)352-9129
E-mail editor@kihasa.re.kr

정기구독안내

■ 신청방법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에서 회원등록을 하십시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간행물 구독안내」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subscribe_guide/subscribe.jsp)

정기구독/배포문의
TEL: 02)380-8157 / FAX: 02)380-1688

■ 정기구독회원 특전

1. 연간구독료는 35,000원입니다. 낱권 구입에 비해 연간 약 50%가 할인된 금액입니다.
2. 정기구독회원은 본 연구원에서 발간되는 정기간행물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를 모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독료 납부

우리은행 019-219956-01-014

IIIII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보건복지포럼**』을 포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되는 각종 간행물에 대한 목록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 신뢰 할 수 있는 통계

국민과 함께하는 보건복지통계포털

① **보건복지통계**
보건, 복지, 인구 및 기타통계,
국제통계, 북한통계, 지역통계,
빈곤통계, 보건복지동향

② **조사통계**
보건 및 복지분야
조사통계 7600여건

③ **복지재정통계**
지방자치 및 중앙 복지재정통계
150여건

④ **비정형통계(신규)**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및
복지재정에 대한
비정형통계서비스 제공

⑤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승인 조사사업
13종에 대한
연도별 원시자료 제공

⑥ **정보마당**
보건복지통계뉴스
국내외 분석보고서
이슈&포커스
통계용어

http://hawelsis.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국 규모의 조사사업을 통해
질 높은 조사통계를 비롯하여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복지재정, 북한 및 지역별 보건복지통계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를 **보건복지통계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Tel: 02)380-8163, 380-8245, FAX: 02)383-6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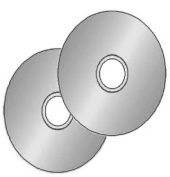
보건복지조사사업 원시자료 이용안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인구분야**의 기초통계 생산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전국규모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집된 자료를 외부 연구자에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시자료 목록

- 2011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 – 횡단/종단
- 2010 환자조사
- 2009 중년층생활실태조사
- 2009 환자조사
- 2009 노인보호실태조사
- 200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2009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 2009 전국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 가구/미혼/기혼
- 2008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 – 가구/노인/(노인+가구)
- 2008 장애인 실태조사
- 2008 환자조사
- 2007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 2006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 2005 환자조사
- 2005 장애인 실태조사
- 2005 전국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 미혼/기혼
- 2002, 2003, 2004 저소득층 자활사업실태조사(가구/개인)
- 2004 차상위 실태조사(가구/근로능력자)
- 2004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가구/노인/(노인+가구)
- 2003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 2002 환자조사
- 2001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 실태조사
- 2000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 2000 장애인 실태조사
- 1999 환자조사 – 퇴원/기관/외래
- 1998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 – 가구/노인/(노인+가구)
- 1997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 가구/부인
- 1997 우리나라 치매노인 실태조사
- 1996 환자조사 – 퇴원/외래
- 1995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행태조사 – 국민건강/보건의식
- 1994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
- 1994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 가구/가구원/부인
- 1992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행태조사
- 1991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 기혼/미혼/부인/임신력/임신 및 출산/출산/취업/피임력

조사자료 담당자 연락처



TEL: 02) 380-8245, 380-8112 FAX: 02) 382-4581
E-mail: yhlee@kihasa.re.kr, hyko231@kihasa.re.kr
Homepage: http://www.kihasa.re.kr